

로마의 바로크 화가 카라바조가 그린

'성 마태'는 미술의 역사에서 가장 떠들썩한 구설수에 올랐던 작품이다. 애당초 제단화로 쓸 요량이었지만 그림을 주문했던 교회 측에서는 작품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복음서를 기록하는 성 마태의 생김새와 자세가 너무도 아니올시다라는 것이 거절의 이유였다. 결국 교회에는 걸리지도 못하고 미술품 수집가 주스티니아니의 손에 넘어갔다가 훗날 베를린 달렘박물관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던 '성 마태'는 2차대전 때 연합군의 폭격을 맞고 그림이 거의 전소되는 알궂은 운명을 겪었다. 지금은 그림 패널 부스러기만 두어 줌 남아 있을 뿐, 조그마한 흑백 사진으로만 흐릿하게 전해지고 있다.

#### 작품 완성하기도 전에 거절

17세기 초, 로마의 내로라하는 예술가과 비평가들은 이 작품에 얽힌 사연을 시시콜콜 알고 있었다. 발리오네는 그때의 일을 이렇게 썼다.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싫어하는 작품이었지만 주스티니아니는 그래도 카라바조의 작품이라고 사갔다." 벨로리는 좀더 자세히 정황을 기록했다. "사제들이 그림을 제단에서 떼어 내렸다. 도무지 성자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두 다리를 척 꼬고 있는 데다 발을 정면으로 딱하니 내뻗은 자세가 특히나 눈에 거슬렀다."

카라바조 그림의 중심주제는 책이다. 성 마태가 복음서를 쓰고 있는 장면에서 가장 밝은 빛은 그림의 한복판에 위치한 책으로 집중된다. 히브리어로 복음서의 첫 귀절을 기록하는 귀중한 순간이다. 사제들이 화가에게 요구한 대로 사보나롤라 의자에 엉덩이 끝을 아슬아슬하게 걸치고 앉은 성자는 자신의 혼신을 기울여 정성스레 기쁜 소식을 써내려가는 중이다. 그의 투박한 손이 빈 종이를 달리면 기적처럼 하느님의 말씀이 기록된다. 그의 서투른 손을 어린 천사가 인도하고 있다. 흰날개를 잔뜩 오무려서 치켜올린 천사의 정성이 여간 고깝지 않다. 그러나 무엇이 사제들을 노엽게 했던 걸까.

## 복음서를 기록하는 세리의 손

카라바조의 '성 마태'

노성두 | 미술평론가



미술사상 가장 떠들썩한 구설수에 올랐던 카라바조의 '성 마태'

카라바조의 그림을 본 사제들은 우선 성자가 너무 못생겼다는 데 경악했다. 서양 기독교 미술의 역사에서 가장 못생긴 성자를 들라면 단연 으뜸자리를 고수할 만했다. 차돌맹이 골상에다 막무가내로 벗겨진 대머리, 납작코와 어울리는 도끼눈. 그뿐이라, 콧대가 야물딱지게 휘어진 것은 접어둔다손치더라도 콧날개는 왜 그리 올망졸망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보다 특별어진 어깨와 근육이 알알이 박인 종아리 부위는 성자의 성스러운 자태와 도통 거리가 멀었다.

그렇다면 카라바조는 왜 이런 엉터리 사도를 그럴 생각을 했던 것일까. 그것도 교회의 주제 단화를! 성 마태는 원래 정체가 좀 아리송한 사도다. 마태와 누가의 복음서에 기록된 마태가 제각기 다른 사람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는 마태가 세리였다고 하고, 다른 하나는 레위였다고 한다. 세리라면 주먹에나 휘두르는 뒷골목 어깨였을 것이고, 레위라면 학식이 높은 점잖은 귀족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성서부터 마태의 신분을 엇갈리게 소개하니, 화가들은 덩달아 헛갈릴 수밖에. 그래서 미술사의 전통에서는 두 신분의 마

태가 번갈아 등장하게 됐다.

카라바조는 성 마태를 그려달라는 주문을 받고 주인공의 모델로 어깨유행을 세울까 끈대 유행을 세울까 무척 고심했을 것이다. 그의 마음은 마침내 어깨에 기울었다. 학자 레위가 멋드러지게 복음서를 써내려가는 것보다 무식쟁이 세리가 힘겹게 한 글자씩 뺨뺨뺨 그려나가는 것이 오히려 성서의 참뜻에 가깝다고 생각했다. 마태는 어디까지나 '신의 손(마누스-테오스)'일 뿐, '자신의 손'으로 천사의 음성을 받아쓸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 미추와 명암의 변증법으로 말씀 증언

보라! 마태는 자신의 손을, 아니 자신의 손을 도구삼아 실현되는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애꿎은 사람들이나 올려대던 솔뚜껑 같은 그의 주먹이 앙증맞은 깃털펜을 쥐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을 것이다. 마태의 눈은 경이로움과 두려움으로 빛난다. 그의 이마는 질긴 어둠에 잠겨 있으나 천사의 밝은 날개가 그의 뒷머리를 은백의 후광처럼 덮고 있다.

그렇다. 기적은 무지로부터 지혜를 드러내 보이고, 광명으로써 어둠을 걷어내는 것. 추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움의 성취가 더욱 빛나고, 자신의 학식을 자랑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겸손함이 복음서의 절대적인 기적을 낳았다. 프란체지 교회의 사제들은 화가의 숨은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다. 미추와 명암의 변증법을 통해서 말씀을 증언하는 예술의 문법에 무지했기 때문이었다. 바야흐로 화가의 깊은 고심이 사제들의 알량한 학식을 앞지르기 시작하는 이상한 시대에 나온 이상한 그림이다. ●